

투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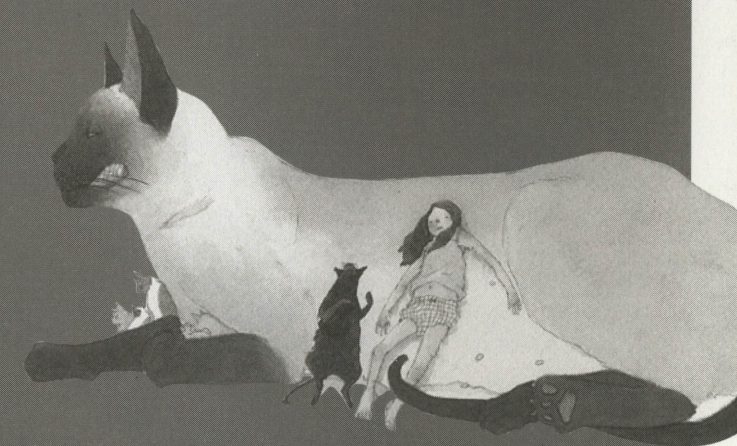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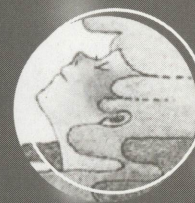
투표는 각 단대 및
중앙도서관 앞, 학관 앞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울림

제46대 총학생회
제21대 총여학생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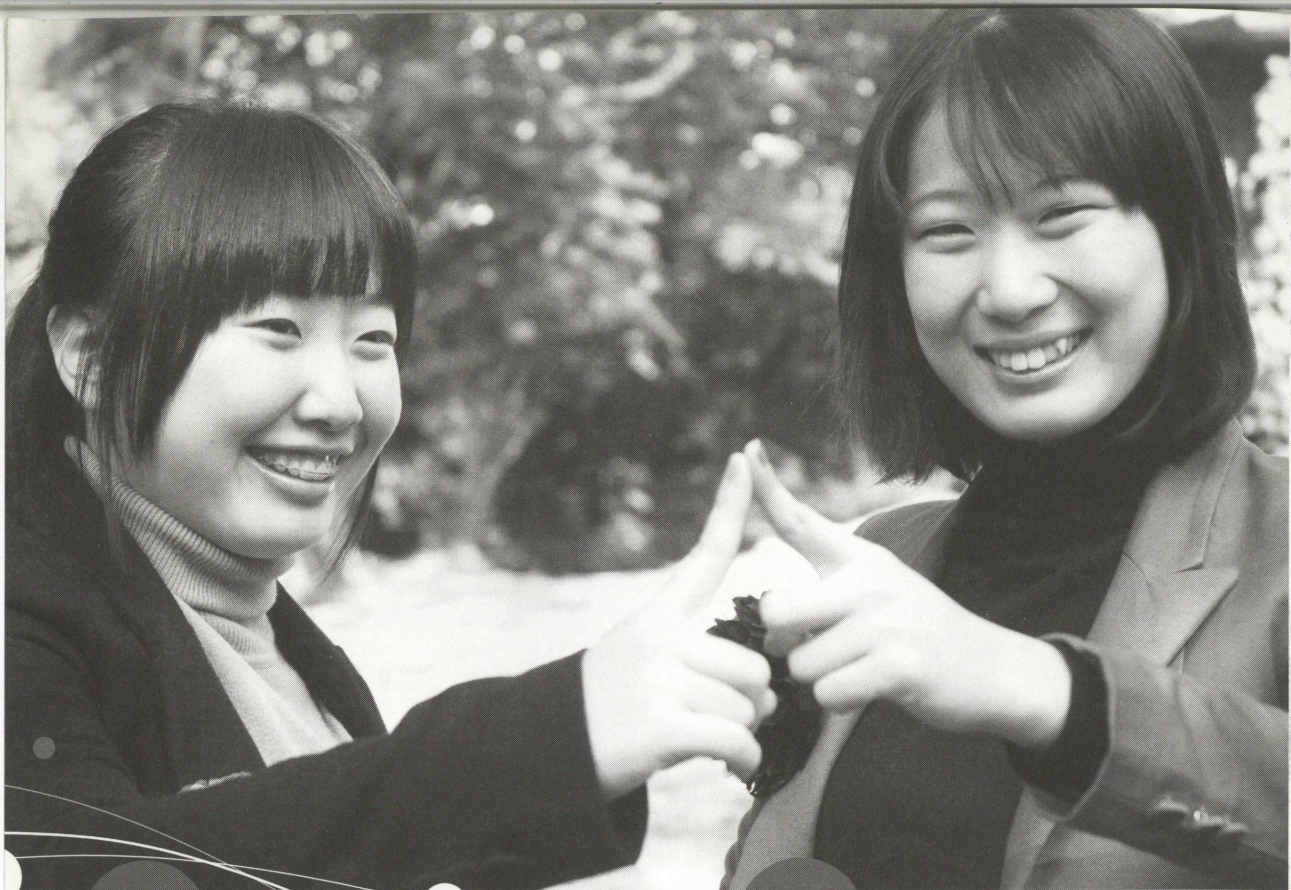
11월 25일~27일은 2009년 학생회 선거 투표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울림



21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문김채연 · 정이명화 와 함께하는 사람들

illustrated by Rie Nakajima



총여학생회
정후보

문김채연_루 (정치외교학과 3학년)

- 2006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입학
중앙동아리 연세문화회 활동
- 2007년 중앙동아리 가톨릭학생회 뉴맨 42대 회장
20대 총여학생회 선거 <틈을 누비다> 선본원 활동
- 2008년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문화국장
2008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제 '너는 어디로 가니?' 기획단
제10회 여성제 Feminism is for Everybody :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기획단
사회과학대학 여성주의 소모임 실타래 활동
연세대학교 여자 농구단 농담 : 농구로 담을 허물자 활동

| 루 | 꼭꼭 숨겨온 나를 자유롭게 드러내다

총여학생회
부후보

정이명화_파니 (사회학과 3학년)

- 2006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입학
사회과학대학 2반 우리사이 기대표 활동
사회과학대학 민중가요노래패 늘푸른소리 활동
포아동 인연맺기 공부방 자원교사 활동
4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청사진> 선본원 활동
- 2007년 4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청사진> 집행부 활동
연세대학교 YMCA 총무
생태적 생협 만들기 : 생(생생) 활동
학내 먹거리를 고민하는 영화제 '불편한 식사' 기획
지역사회 대안학교 풀뿌리사회학교 운영진
- 2008년 사회과학대학 2반 우리사이 농활대 여농주제 활동
연세대학교 YMCA 부회장
여성주의 세미나모임 수다만발 활동
연세대학교 여자농구단 농담 : 농구로 담을 허물자 활동

| 파니 | 경계에서 피어난 선을

친구들이 웃자고 꺼낸 성적인 농담에 웃을 수가 없었다.
수업 시간 누군가가 발표를 하며
동성애를 비하하는 말을 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너도 참 예민해서 탈이야”
친구들에게 나의 불편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며
나의 불편함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쳤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정말 숨겨야 하는 것일까?
왜 나는 혼자서만 이런 곪끄러움을 느끼는 것일까?
용기를 내서, 나의 불편함에 대해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항상 꼬투리만 잡는 사람이던 내게,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털어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새로운 힘이 되어,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으로 바뀌어 나갔다.

나는 이제 나의 불편함에 대해
더욱 힘차게 이야기한다.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Illustrated by Rie Nakajima

1..反! 성폭력

-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등 일상에 만연하지만 가시화되지 않았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반성폭력 주관을 정해 자보전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반성폭력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 반성폭력 교양을 진행하고 자치규약 자료집을 발간하며, 성평등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할 것입니다.

2..2.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



-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학생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학내에서 생태적인 고민에 기반한 소비와 실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대동제 장터 기간에 지역농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에서 가능한 생태적인 실천을 제시하겠습니다.
- 에코페미니즘 운동 팀을 꾸려서 각종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학내 곳곳에서 생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여성노동을 힘차게 이야기하다

- 학내에서 여성 노동을 이야기하는 간담회와 같은 장을 마련하여 여대생 취업의 어려움과 노동 현장의 현실을 학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연세대 비정규 미화 여성노동자와의 연대를 지속하고, 다양한 여성 노동 이슈에 대하여 학내 선전과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겠습니다.

4..비장애중심성을 뒤엎다



- 남성중심적이고 비장애중심적인 학내 상황을 가시화하여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정상과 비정상의 권력관계에 문제제기하겠습니다.
- 장애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해, 비장애인중심적인 학내 교육환경을 폭로하고 이를 운동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 학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 여성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학내에 담론을 형성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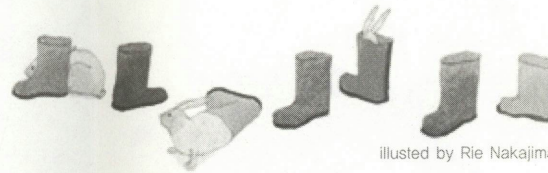
7..여학생 교육권을 외치다!



- 학생들이 강의실언어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강의 평가 항목을 수정·확충하고, 교수 반성폭력교양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여학생 사위실을 확충하겠습니다.
-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이 여학생 전용 체육 수업으로 개설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여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를 담론으로 형성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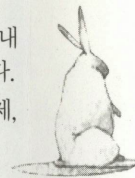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울림



illustrated by Rie Nakajima

6..소통으로 피어나는 여성주의

- 다양한 여성주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겠습니다.
- 화장실 소식지, 여성주의 신문과 같은 매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를 만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여학생 수첩을 발간하겠습니다.
- 여성주의로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축제, 여성제를 열겠습니다.



5..소모임 네트워크와 함께 힘받는 일상

- 과·반 내 여학생 소모임, 여성주의 세미나 모임, 여성농구모임과 같은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에 소모임 네트워크를 제안하여, 이들 간의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이 지나온 발자취를 남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